



사랑은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지부장 함 제 도 신부 / 메리놀외방선교회한국지부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마태오 5,46)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 실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불완전하게 만드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봄 날씨가 하기엔 쌀쌀합니다만 새벽 산책을 하다보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세상 빛을 보려고 파란 짝이 올라와 있음에 봄을 느껴 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물질적으로 더욱 힘겨운 시기이기에 봄의 시작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준비하는 계절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에 발을 내딛던 첫해 1960년 겨울, 한국 이웃들이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 땀감이 없어서 냉방에서 쪼그리고 잠을 청하시는 어르신들, 먹지 못해 굶주림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결핵환자들... 그래서인지 추운 겨울 하면 그때의 그 분들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의 모습들이 지금의 북쪽 동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평생 한반도의 남쪽에서 메리놀 외방 선교회 선교사로 살아온 저에게는 오래 전부터 다른 반쪽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오랜 소망이었고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지금까지 13번 방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이웃들의 의식주, 의료시설 등은 우리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처 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빛났던 그들의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인도에서 온 편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준 카리타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반디라는 마을에 사는 56세의 할리마 베건이라고 해요. 작년 10월 8일 일어난 대지진으로 저는 사랑하는 남편(구랍 셰크)을 잃고 우리 가족의 보급자리까지도 모두 잃었어요. 저에게는 두 딸과 아들이 있지만 모두 직업이 없어서 생계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답니다. 남편과 집을 잃은 저는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제 삶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신께서 나에게 삶과 죽음의 선택이라는 시험에 처하도록 하셨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 아들은 결혼하여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지진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하여 그들의 생계도 책임지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일단 우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천막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때 저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마을의 다른 가족들처럼 정부로부터 정해진 양의 식량배급과 40,000 루피(약 100만원)를 피해보조금으로 받았습시다. 그러나 살 곳 없는 저희 가족에게 그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 저희 가족은 카리타스로부터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매우 큰 선물을 받았어요. 카리타스의 사람들은 우리가 먹기에 충분한 양의 식량과 기차재들, 그리고 필요로 하던 생활용품들을 지원해 주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임시보호 주택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곁에서 이처럼 크나큰 도움을 주는 이 귀한 카리타스 사람들을 보내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할리마 베건

-김태환 후원회원님의 편지

진정한 나눔이 가져다 주는 행복

제가 처음 파키스탄의 지진 피해 모습을 본 것은 공중파 뉴스에서였습니다. 콘크리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던 한 어린 소녀의 눈물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슬프게 가슴 속 깊이 자리잡았고, 가진 것 없는 이기적인 저에게 그 소녀의 슬픈 눈은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고통에 직면해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듯이 제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제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마음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해외 재해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카리타스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한국 카리타스가 어떤 단체이며 어떤 원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 카리타스의 과거 원조 기록들은 더 이상 후원단체를 살펴볼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었고 직접 제가 갈 수 없는 그 곳에 작지만 진심어린 제 정성을 대신 옮겨주는 한국 카리타스가 지금은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너무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없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그런 순간이 비단 내가 아닌 내 가족, 친구 중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음을 모두들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웃들이 모아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은 아마도 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고 또 그 손을 잡아 서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그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행복한 생각을 떠올리며 제가 그 파키스탄 소녀에게 건넨 손길이 소녀의 슬픈 눈을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했을 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 김태환 후원회원

대지진이 드리운 절망 속에서 희망의 촛불을 밝히다

파키스탄과 인도, 아프가니스탄을 강타한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카리타스의 땀방울



역사에 기록될 뼈아픈 재난, 남아시아를 강타한 대강진

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은 재난이 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강도 7.6의 강진은 진원지인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수도 무자파라바드를 시작으로, 파키스탄의 2개 주, 인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 12월 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경우, 8만 6천 명이 사망, 10만 명 부상, 그리고 3백만 명 가량이 집을 잃었고, 인도에서도 사망 1천4백 명, 부상 6천 명, 그리고 3만2천 개의 가옥과 건물이 파손되어 인도 전체 16만 명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대지진 발발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과 산사태, 곧바로 찾아온 겨울의 추운 날씨는 피해지역의 복구작업과 피해가족에 대한 물품지원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고지대 산악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폭설로 좁은 도로마저 폐쇄되어 구호의 손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등 피해복구가 원활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전 세계로부터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정성을 전하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계속하여 전달되고 있다. 특히, 2004년 말 남아시아 지역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쓰나미(지진해일)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아시아의 또 다른 이 재앙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체계적이고 강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현장에 국제 카리타스가 앞장서고 있다.

국제 사회에 남아시아 지진피해 긴급구호를 요청,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친다

지진 발생 직후 파키스탄과 인도 카리타스는 피해 지역에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즉각적으로 상황 조사에 나섰으며, 국제 카리타스는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구호지원팀 (Emergency Response Support Team)을 현장에 급파하고 해당국 카리타스와 협력하여 초기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하였다. 10월 27일, 국제 카리타스는 전세계 160여 개의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요청서를 발급하였다. 지진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전 세계 카리타스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파키스탄 카리타스 직원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지원팀이 파견되어 임시 보호소, 보건, 식수 및 위생 등에 대한 분야별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카리타스는 복구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카리타스 구호팀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접근이 어려워 구호의 손길로부터 차단되었던 험한 산악지역에 긴급구호요원을 파견하여 4-5시간 이상씩 산을 올라 고립된 마을의 욕구 조사와 구호물품 지원에 나섰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지원활동

국제 카리타스는 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적 존엄성과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국제 카리타스는 현지 카리타스 구호팀 및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타 원조단체들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욕구조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 카리타스는 피해 조사팀과 초기긴급구호팀의 조사에 따라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주택(보호소 또는 천막)과 생필품 지원 및 백신접종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가 긴급히 요청됨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 카리타스의 파키스탄, 인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

파키스탄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및 활동내용	인도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및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5,500가구에 임시 보호소 설치 및 생필품 지급 2단계 : 5,000 가구에 기본적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3단계 : 5,000 가구에 생계 지원 4단계 : 타 단체와 협력하여 임시 이재민 캠프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 지원 5단계: 500 가구에 가옥 재건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4,000가구에 식량 및 생필품 제공, 3,000가구에 긴급 겨울용 텐트 제공 2단계 : 4,000 가구에 기본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 제공 3단계 : 5,000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및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 4단계 : 2,000 가구에 소득 창출 장려금제를 통한 위생시설을 갖춘 가옥 제공 5단계 : 1,200 가구에 새 가옥 / 가옥수리 지원 6단계 : 4,000 가구에 생계 지원
<p>지원내역 (지진발발 ~ 2006년 2월 말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식량물품 - 총 16,269 가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용 천막 (6,500개) - 담요, 합성수지 깔개, 이불, 매트리스, 세면대 시설 - 위생용품, 주방세트, 스토브, 냄비 등 	<p>지원내역 (지진발발 ~ 2006년 1월 말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4,000 여 가구 지원 (쌀, 밀가루, 기름, 비스킷, 소금, 차, Dall 등) ▶ 비식량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용 임시천막: 2,657 가구 - 따뜻한 의류와 신발: 2,871 가구

국제 카리타스는 지진발발 직후 욕구조사를 통해 수립된 위의 지원계획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피해가구를 위한 주택의 재건축은 날씨와 기후를 고려하여 올해 여름부터 시행될 것이다. 또한 올해 2006년부터 파키스탄에서는 집중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피해 산악지역인 Abbotabad 구의 Boi와 Dilola 두 마을에 초점을 맞추어 1,000개 주택 건축, 지진의 잔해 제거 및 청소작업, 마을의 경제기반 구축 및 주택건축의 기술전수, 의료 및 생계지원, 식수, 위생, 사회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2006년~2008년까지의 국제 카리타스 피해복구 장기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p>파키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역 전역에 생필품 우선지원 ▶ 구호집중지역(Boi, Dilola)에 3년간 보호소 운영 및 의료지원, 생계지원 ▶ 타 NGO와 함께 난민캠프 운영 및 피난민 재정착 지원 ▶ 미피해지역 가족과 피해가족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호스트 프로그램 운영
<p>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슈미르 피해지역 아동대상 교육 및 심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운영 ▶ 소득창출 장려금 제도를 통한 가옥 재건축 지원 ▶ 새 주택 제공 및 손상가옥 수리 ▶ 생계지원 프로그램

한국 카리타스에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10월 8일 지진 피해 발생 직후 각 교구를 통하여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난해 말까지 총 4억 747만 643원의 성금을 접수하였다. 지난 11월 4일 국제 카리타스를 통해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파키스탄 동북부 지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미화 5만 달러(한화 5250만 원)를 긴급 지원하였고, 이어 지속적인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미화 16만 5천 달러(한화 1억 6764만 원)를 추가 지원하여 파키스탄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총 21만 5천 달러(한화 2억 2014만 원)를 지원하였다.

또한,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도 긴급구호요청 직후 미화 5만 달러(한화 5천80만 원)를 지원하였다. 한국 카리타스의 구호 지원금은 초기 활동에서, 피해 가족들에게 겨울용 방한 천막을 구입, 지원하고, 생필품과 부엌용품, 식량(인도)과 스토브 및 연료비 지원, 그리고 백신접종 등의 의료지원에 사용되었다.

성금의 잔액은 국제 카리타스를 통하여 올해 계속될 지진 피해지역 장기복구 및 재활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지진의 피해 못지않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몇 명의 사상자가 더 발생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 Catholic Relief Services, 2005년 11월 파키스탄 구호현장



* 지원 문의 : 02)2279-9204
 * 필리핀 긴급구호 지원 모금 계좌 (예금주 : (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우리은행 064-106713-13-432
 - 농협 386-01-013442

희망SOS

필리핀 레이테섬의 산사태

무너진 마을을 일으켜 줄 희망을 요청합니다!



- 3천 명의 주민이 사라진 기온사우곤 마을

필리핀 정부는 지난 2월 17일, 필리핀 중부 레이테 섬에서 초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약 3,5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도 2.6의 지진이었지만, 2주일가량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였기에 산사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된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현장에 민간 단체와 민방위 인력 외에도 군 병력까지 투입해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매몰된 지역에 덮여 있는 흙의 깊이가 10m 이상으로 생존자에 관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 필리핀과 레이테 섬은 어떤 곳인가

정식명칭은 필리핀공화국(Republika ng Pilipinas)이며, 수도는 마닐라이고 공용어로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사용한다. 필리핀 국민 8400만 명 중 80%가 가톨릭 신자이나 한 사람당 하루 0.6달러(약 600원) 이하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필리핀 전체 인구의 30%가 넘으며, 최상위층 10%가 전체 국부(國富)의 90%를 차지하고, 중산층은 사라진 사회·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필리핀의 국토는 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만한 섬은 880개 정도이며, 환태평양 화산대와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나고 있기에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다.

필리핀에서 8번째로 큰 레이테 섬은 필리핀 중부 비사얀 제도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인구는 151만 1천여 명이다. 그러나, 이 섬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라니냐'로 인한 장마와 무분별한 나무 채벌로 인해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왔다. 특히 지난 1991년에도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로 6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참변을 겪었다.

▶ 한국 카리타스, 긴급 원조금 미화 5만 달러 지원

필리핀 산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필리핀 카리타스는 지난 3월 2일, 로마의 국제 카리타스 본부를 통해 긴급구호요청서(SOA 07/2006)를 보내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주요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일어난 이번 산사태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하고 생존자들을 위한 “관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에 한국 카리타스는 필리핀 산사태 피해에 대한 초기 긴급 구호를 위하여 미화 5만 달러(한화 49,325,000원)의 긴급 원조금을 지난 3월 10일에 지원하였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를 청합니다”

† 평화를 빕니다!

지난 17일 아침, 레이테 섬 남부의 세인트 버나드 시 기인사우곤 마을에서 토네이도(회오리 바람)를 동반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려 이 지역의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엄청난 진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왔고, 약 3000명이 살고 있던 이 마을 전체를 묻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과 사업 차 혹은 장을 보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있던 몇 명의 남자들뿐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대피해야 했던 주변 8개 마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난 주말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

피해를 입은 교구의 사회행동센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 본당의 많은 봉사자들은 이재민들을 근처 마을의 적합한 공공 건물로 대피시키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재민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인터뷰하여 가족별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긴급구호 물품을 보급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민들에게는 식량, 식수, 의약품, 의복, 담요, 비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재민 대피소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걱정과 기도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필리핀 카리타스 사무총장 로잔 수녀

* 필리핀 카리타스 사무총장이신 로잔 수녀님이 국제 카리타스와 아시아 카리타스에 보낸 편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카리타스란?

카리타스(Caritas)는 사랑, 애덕, 자선이란 뜻의 라틴어로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에 근거하여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기구나 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카리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본부를 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는 전 세계 201개 국가와 지역에서 162개 회원기구가 구호, 복지,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Caritas corea)는 국제 카리타스의 정회원으로 전세계 162개 회원기구와 상호 협력하여 긴급구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전국 차원에서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을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전국 16개 교구 카리타스(사회복지회)와 830여 개의 시설·기관 카리타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카리타스는 1995년부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의료 지원 및 농업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 54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신규회원명단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8일 까지) *

개 인 회 원	
강종수	충남 아산시
경현수	대전 중구
고준건	대구 수성구
곽경열	전북 완주군
곽재진	대구 수성구
구민정	경기 고양시
권수현	대구 수성구
금민정	서울 강남구
김경숙	광주 남구
김경영	경남 진주시
김관중	서울 성동구
김기영	서울 관악구
김두례	서울 용산구
김미영	제주 제주시
김상숙	전북 전주시
김소희	서울 용산구
김숙자	경북 경산시
김아진	경기 용인시
김양수	전북 전주시
김연옥	경남 양산시
김영숙	충남 천안시
김영인	경기 수원시
김영철	강원 춘천시
김옥경	대구 북구
김용운	서울 강남구
김옥동	경기 고양시
김은희	경기 수원시
김재용	서울 강남구
김정미	경기 수원시
김정현	경남 거제시
김정화	부산 해운대구
김지연	전북 전주시
김천명	경기 수원시
김혜숙	부산 북구
김홍록	경기 수원시
김희숙	광주 광산구
남 현	서울 중랑구
류희경	경기 용인시
문경미	서울 종로구
문명호	서울 종로구
문순녀	경남 진해시
문정숙	대구 수성구
문홍주	전남 순천시
박명숙	광주 동구
박문정	경기 성남시
박상국	서울 도봉구
박성춘	서울 강동구
박숙예	서울 서초구
박옥매	경기 시흥시
박인진	대구 남구
박주연	서울 강남구
박현규	경북 김천시
방성욱	서울 용산구
서순임	인천 계양구
서영란	서울 중랑구
서지영	경기 의정부시
신역기	경남 창원군
신재만	서울 노원구
신창남	서울 금천구
신현경	경기 과천시
심정희	서울 영등포구
오건세	대전 서구
오안예	경북 칠곡군
오용희	인천 중구
오희전	광주 광산구
옥성원	부산 남구
우정미	경기 화성군
유경희	서울 강남구
유선영	경기 남양주시
유인덕	경기 수원시
유창영	경기 성남시
윤미숙	경기 군포시
윤성한	경기 성남시
윤세호	경기 오산시
윤혁남	서울 송파구
이경숙	서울 광진구
이경원	서울 서초구
이귀옥	대구 남구
이기정	경기 안산시
이길선	경남 거제시
이동규	대구 수성구
이동현	대구 수성구
이란아	서울 강남구
이복동	서울 강동구
이상훈	경기 용인시
이선주	서울 도봉구
이슬라	경기 성남시
이수연	서울 노원구
이승환	경기 고양시
이연희	서울 양천구
이원자	전북 전주시
이윤지	대구 수성구
이정수	경북 경산시
이지연	울산 남구
이지은	경기 성남시
이진주	전남 순천시
이춘경	경북 영덕군
이한주	대구 북구
이혜옥	서울 강동구
이혜자	경기 부천시
임유림	서울 서초구
임춘자	충북 충주시
임태현	경북 상주시
장명숙	서울 노원구
장미학	대구 수성구
전동균	서울 서대문구
전병주	경기 수원시
전호선	경기 수원시
정경화	경기 군포시
정문섭	인천 부평구
정미애	대구 북구
정용희	서울 양천구
정옥희	경기 안산시
정지연	서울 송파구
정지형	경기 시흥시
정효준	경남 마산시
조경혜	부산 동래구
조광태	대전 서구
조희재	경기 의정부시
주 덕	광주 동구
차유리나	경북 구미시
최경애	경기 안산시
최순자	경기 수원시
최영희	강원 삼척시
최유진	서울 관악구
최윤정	대구 수성구
최은정	경기 용인시
최정림	인천 동구
최정인	강원 평창군
최종을	경기 시흥시
한기식	서울 광진구
한주선	전남 나주시
현익현	경북 칠곡군
홍모선	경남 밀양시
황세선	충북 충주시
황영숙	인천 부평구
황정숙	충북 제천시
단 체 회 원	
남아프리카항공사	
서울 중구	
송전성당 어린이집	
경기 용인시	

● 지난 3개월간의 후원금 ●

2005년 12월에는 271,392,560원, 2006년 1월에는 110,062,216원, 2월에는 44,444,559원으로
 지난 3개월간의 총액은 425,899,335원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세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의 마음까지도 전해져서
 모두 행복한, 참으로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